

500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만든다

군산시, '한국관광의 별' 선정 따라 올해에도 관광분야 활동 이어가기로

근대문화 유산의 도시, 군산시가 올해 500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종합 전략에 시동을 건다.

군산시는 지난해 목표로 했던 300만 관광객 유치에 일찌감치 달성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 주최한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연이은 낭보로 관광분야에서 빛을 발한 가운데 올해에도 관광분야에서 그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고군산도의 4개섬을 잇는 고군산연결도로의 전면개통과 올해 연말 예정되어 있는 동백대학교의 개통은 올해 군산의 500만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의 달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페이퍼코리아의 이전완료와 롯데아울렛의 준공을 통한 경암동 철길마을과 연계된 동부권 관광여건 개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확정에 따른 민간투자 여건의 호기, '한국관광의 별' 수상으로 인한 시간여행 브랜드의 가치 상승 등의 요인은 시 전반에 걸친 관광산업 성장에 긍정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인정받은 시간여행마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중앙동 일원, 중심시가지형)과 연계 등을 통해 관광영역을 확장하고, 1박2일 시티투어버스와 광역시티투어버스

(전주~군산~부안~고창 순환형)의 운영과 광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을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군산관광의 또 다른 한 축을 맡게 될 고군산군도는 그 폭발적인 관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 숙박 시설과 화장실, 관광종합탐방지원센터, 샤워장 등의 관광인프라 조성 ▲섬 특성을 살린 스토리텔링 상징물과 선유도 홍보관 설치 ▲포토존과 수변공원 등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배후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한 온·오프라인 병행홍보와 SNS 서포터즈를 모집·운영하고, 올해 개최 예정인 대규모 행사에는(시간여행축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새만금 국제마라톤 등) 주민, 유관기관, 관광업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시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8년에는 관광객 500만 시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관광의 별' 수상 도시의 위상에 맞는 종합 관광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은과관광 호텔 조기 건립과 금강호관광지 조성 사업, 비응항 관광자원 조성 등 미진 사업 해소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영화산업 발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군산시, 영화촬영지로 각광... 지원제도 통해 유치활동 펼쳐

근대문화유산과 천혜의 비경을 바탕으로 군산시 각종 영화의 촬영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군산을 전국 제일의 영화촬영 명소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은 1948년 이만홍 감독의 영화 '뚝이전' 촬영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39편의 영화가 촬영되었고, 지난해에만 대형기획사가 제작에 참여해 기대를 받고 있는 '영력'과 '게이트', '미야왕' 등의 화제작들과 군산 울로케이섬으로 진행된 '질투의 역사' 등 총 18편의 영화들이 군산을 배경으로 촬영이 진행되어 명실상부한 영화 촬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영화 촬영이 지역을 알리는 홍보로 이어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련 영화산업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판

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화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분주한 발걸음을 펼쳐왔다.

지난해 5월, 군산시는 (사)전주영상위원회(전라북도 영화·TV 드라마 촬영장소 추천, 섭외 및 촬영 로케이션 지원기관)와 영화촬영 유치활동 협력, 촬영장소 섭외·협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등 상생협력 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017년 10월부터 총 제작비 1억 이상, 군산에서 3회 이상 촬영하는 영화 작품에 대하여 현지에서 소비되는 숙박비, 체재비를 지원하는 '로케이션 지원사업'을 마련했고, 이는 지난해 18편 영화촬영 유치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로케이션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된 보조금은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 사용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환원되는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다.

시에서는 이러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된 5000만원의 영화촬영 유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사)전주영상위원회와 함께 '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영화촬영지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군산시를 영화촬영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시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영화산업을 발전시켜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 신청·접수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과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신청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43% 이하(2018년 기준 4인가구 194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오는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선정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4인가구에 최대 20만8천원의 임차료,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최대 1,026만 원 상당의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원광대 김옥진 교수 연구팀 반려견의 아동 인성 향상 효과 규명



원광대학교 보건보건의학대학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김옥진(사립) 교수 연구팀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려견을 활용한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아동의 인성 향상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김옥진 교수는 2017년 농촌진흥청 TOP5 융복합프로젝트인 '아동 인성 향상을 위한 동물매개교육 모델 개발' 주관책임자로 선정돼 2019년까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연구팀이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에 각각 특화된 반려견을 활용한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개월 동안 초등학교 2학년 아동 34명과 5, 6학년 아동 84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군에

적용한 뒤 그 변화를 학생 인성 평가 척도와 뇌파 검사, 호르몬 검사 등 데이터로 측정했다.

연구 결과 반려견을 활용한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아동 대상자들은 인성 평가 척도 점수 상승과 뇌파가 주의자수 및 점 스트레스 지수의 향상,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연구 결과는 2017년 대한수의학회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김옥진 교수는 "반려견이 아동에게 주는 정서적, 심리적 이점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있고 교육에 접목해 효과적인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며 "농촌진흥청 TOP5 융복합프로젝트인 반려동물 산업과 지원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동물매개교육의 과학적 접근 및 표준화와 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고군산군도의 신비 해상교량에서 체험

서해의 비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고군산군도의 해상교량을 중심으로 멋진 풍광과 함께 섬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다.

고군산군도는 신라시대 명성을 떨쳤던 대학자인 최치원 선생이 거주했던 곳으로 최치원 선생이 남긴 문화유산과 관련 이야기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다.

또한 고려시대부터 수군기지를 두는 등 우리나라 역사에서 오랜 시간 군사·전략적 요충지였고, 고려와 송나라를 잇는 무역로의 기항지였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왜군에게 대승을 거둔 뒤 머물렀던 명소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선유대교 입구에 최치원 선생이 선유도 남악산 해안 곶에 사는 황금패지에게서 태어났다는 황금패지 설화를 반영한 포토존을 조성하면서 육지와 바다를 잇는 고군산군도의 해상교량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를 조성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고군산연결도로 건설공사와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공간 조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상교량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를 활용한 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여 일원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가족간의 호칭·지칭 바로알기' 리플릿 제작

'종형제'가 자신과 어떠한 관계인지 아시나요?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가족도시'로 한단계 발돋움하기 위해 평소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여겨지는 가족호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가족간의 호칭 및 지칭 바로알기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핵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친족 간의 왕

래가 줄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족 간 호칭과 친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추세를 반영해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제작된 리플릿을 통해 가족호칭을 정확히 알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양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